

〈구운몽〉과의 현대적 소통*

— 현대역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송성욱**

— <차 례> —

1. 서론
2. 현대역 텍스트의 문체
3. 청소년, 아동용 텍스트의 구조
4. 현대역 텍스트의 삽화와 부가 정보
5. 맺음말

〈국문초록〉

〈구운몽〉과의 현대적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을 위한 텍스트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텍스트는 원전으로서의 〈구운몽〉이 아니라 일반적인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현대역 텍스트여야 한다. 본고는 〈구운몽〉 현대역 텍스트의 번역 및 구성 양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구운몽〉 현대역 텍스트는 독자들의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구운몽〉을 원전에 가깝게 번역하는 것은 일반 독자 즉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물론 독서 능력이 거의 완성된 고등학생까지 감안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작품 곳곳에 서술되는 전고의 처리, 문장이나 문단의 구획, 문장의 서술어 처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지나치게 원전에 구속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원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원래 작품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그런데 가독성에 치중한 나머지 단어를 생략하거나 표현을 바꾸었을 때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발견된다. 사소한 부분은 놓칠 수도 있으며, 굳이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 본 연구는 2010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달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다. 특히 이동이라면 오히려 전달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법한 장면도 있다. 그런데 대개의 현대역 텍스트는 이러한 전략적 고려가 없이 편의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구운몽>과 현대적 소통을 시작하면서 복잡한 연구사적 맥락이 깔려있는 주제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적인 사안은 아니다. 이 문제는 뒤로 미루어도 될 듯싶다.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구운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고전소설의 미학이며, 고전소설 전체에 걸쳐 있는 지형도이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구운몽>을 자발적으로 읽으려는 독자층을 확보하기 힘들다. <구운몽>과 현대적 소통을 시작하려는 현대역 텍스트들도 이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구운몽>, 원전, 현대역, 문체, 삽화, 텍스트, 아동

1. 서론

문학작품과의 일차적 소통은 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원전의 형태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겠지만, 조선시대 소설과 같이 원전을 읽을 수 있는 독자가 한정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동시에 접근하는 작품의 경우는 독서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텍스트를 변형하는 일까지 필요하다.

<구운몽>은 그 문학사적 중요성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등장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현대역 텍스트가 요구되는 작품이다. 그런 만큼 상당히 많은 종류의 <구운몽> 현대역 텍스트가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¹⁾ 뿐만 아니라 <구운몽>의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도 꽤 많

1) 이에 대해서는 권혁래, 『<구운몽>의 현재적 소통과 다시쓰기 출판물』, 『온지논총』 27집, 온지학회, 2011, pp.9~37.에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 진척되었으며, 범위도 중등학생 교육과 관련한 연구에서부터 대학 수업에서의 교육까지 넓게 확산되어 있다.²⁾ 특히 <구운몽>은 다른 소설과는 달리 주제적 심도가 범상하지 않은 소설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구운몽>이 삶에 대한 가치를 전면적으로 질문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라는 견해³⁾는 <구운몽>이 가진 무게를 기능하게 한다.

그런데 학계에서 <구운몽>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기울이는 만큼 일반인들 역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구운몽>이 명실상부한 우리 고전이라면 누구나 찾아서 읽어보고 싶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작품과의 소통을 즐겨야 한다. 그런데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구운몽>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선 <구운몽>이 교과과정에 수용된 작품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운몽>과의 다양한 소통 가능성이 차단되었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출판된 대부분의 현대역 텍스트가 교육용 도서로 기획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읽는 소설로 각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구운몽>과 독자와의 자유롭고 즐거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구운몽> 현대역 텍스트를 원전과 대비하여 비교하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여

2) 최근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결과 중, 중등학생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강욱, 「<구운몽>의 재해석과 희망의 서사교육」, 『국어교육연구』 46집, 국어교육학회, 2010, pp.121~158.에서 연구사 비판 및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대학에서의 고전소설 교육과 관련해서는 권순궁,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지행과 방법」, 『한국고전연구』 1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pp.27~56. 및 권혁래, 「대학 교양수업에서의 <구운몽> 읽기와 소설교육」, 『새국어교육』 83집, 새국어교육학회, 2009, pp.5~25.가 있다.

3) 이강욱, 위의 논문, p.122 참조.

기에서 모든 현대역 텍스트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는 없으며 그것이 효과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현대역 텍스트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미루고⁴⁾, 여기에서는 읽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⁵⁾

2. 현대역 텍스트의 문체

<구운몽>과의 현대적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을 위한 텍스트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텍스트는 원전으로서의 <구운몽>이 아니라 일반적인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현대역 텍스트여야 한다. 현재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반영된 작품을 위주로 한 폭넓은 독서 교육의 일환으로 여러 고전소설의 다양한 현대역 출판물이 존재한다.⁶⁾ <구운몽>도 예외는 아니어서 원전에 충실한 현대역, 삽화를 이용한 현대역, 작품 해설 혹은 해석을 겸한 현대역 등 다양한 출판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작품을 읽는 대상 연령을 고려한 결과이다.

<구운몽>을 원전에 가깝게 번역한 것은 일반 독자 즉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물론 독서 능력이 거의 완성된 고등학생까

4) 권혁래, 위의 논문.

5) 권혁래, 위의 논문에 의하면 2010년도까지 출간된 <구운몽> 현대역 텍스트는 무려 28종에 달한다. 이중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출간된 텍스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용과 아동용의 구별이 모호하여 아동용이라고 명백하게 거론할 수 있는 몇몇 출판물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아동용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출판사의 인지도, 판매량 등을 고려하면서도 가장 충실하게 기획되었다고 판단되는 텍스트를 선별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6) 이강옥, 『초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와 방향』, 『고전소설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한국고소설학회), 2005.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전소설 다시쓰기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 감안했을 수도 있다. 원전에 가깝게 번역할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작품 곳곳에 서술되는 전고의 처리, 문장이나 문단의 구획, 문장의 서술어 처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지나치게 원전에 구속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원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원래 작품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 ① 선녀 팔인이 걸어서 산문을 나와 서로 의논하되, “남악 형산은 한 물과 한 언덕도 우리집 것이 아닌 것이 없지만, 이 화상이 절을 연후로는 홍구지분(鴻溝之分)이 되었는데라. 연화봉 경치를 지척에 두고 보지 못하였더니 우리 이제 다행히 낭랑의 명으로 이 땅에 왔으니, 해 저물기 전에 연화봉 위에 옷을 떨치고 폭포수에 관(冠) 끈을 씻고 글을 읊고 돌아가 궁중의 자매들에게 그 유람을 자랑하는 것이 어찌 즐겁지 아니리오.” ①하니, 모두 그 말이 마땅함을 일컫더라.⁷⁾

이 현대역은 원전의 표현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특히 ‘홍구지분’과 같은 다소 까다로운 한자성어 역시 그대로 노출시키고 대신 각주로 처리하였다. ‘-지라’, ‘-리오’, ‘였더니’, ‘-더라’와 같이 고전소설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서술어를 최대한 살렸다. 따라서 원전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지만 이로 인해 가독성은 떨어진다. 이는 <구운몽>을 현대역하는 작업에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문제이다.

다음 인용은 보다 가독성을 높인 경우이다.

- ② 팔선녀가 대사께 하직하고 문 밖으로 나오면서 말했다. “하늘이 만드신 남악은 물과 언덕이 모두 우리집의 것이었는데, 육관대사가 거쳐하신 후부터 경계가 분명히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연화봉의 경

7) 송성욱 역, 『구운몽』, 민음사(세계의문학전집 72), 2003, p.12.

치를 지적에 두고도 구경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제 다행히 낭랑의 명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 게다가 춘색이 아름답고 산에서의 하루도 아직 저물지 않았으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연화봉 위에 옷을 벗어놓고 폭포수에 관 끈을 씻으며 시를 읊고 돌아가서 궁중 자매에게 자랑하면 정말 즐겁지 않겠습니까?⁸⁾

한자성어가 없어지고 문장이 보다 짧게 처리되어 가독성이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 같은 인용어투도 생략하고, ‘-하나다’, ‘-하니까’로 문장을 종결시킴으로써 현대적인 문장 감각에 가깝게 번역이 이루어졌다. 대신에 ㉠과 같은 표현이 더 들어와 있어 내용상의 차이도 약간 보인다. 물론 내용상의 차이는 ㉠과 ㉡가 대상으로 삼은 원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은 규장각본 한글 4권 4책본을 저본으로 삼았고, ㉡는 이가원 소장본 정규복 재구본(再構本) 즉 한문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의 문장 종결어미가 현대 표현에 가까운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과 ㉡는 원본에 충실하면서도 가독성을 획득했다고 여겨진다. ㉠은 애초에 국문본을 저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고전소설 특유의 문장 감각을 살릴 수 있었고, ㉡는 한문본으로 인해서 세밀한 표현이 풍부해질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소통되고 있는 <구운몽> 현대역 텍스트의 상당수는 대부분 중, 고등학교 학생이나 초등학생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하고 제작된 것이다. 이 텍스트들은 원전의 분위기보다는 가독성을 높이는 데 훨씬 주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현대역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과 문제점이 보인다. 먼저 다른 텍스트에 비해 원전의 내용을 비

8) 설성경 역, 『구운몽』, 책세상, 2003, p.10.

교적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나라말 출판사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문 밖을 나온 팔선녀가 서로 의논을 하였다.

“남약 형산은 어느 곳도 우리 집이 아닌 곳이 없었는데, 육관대사께서 연화도량을 여신 후로는 연화봉의 좋은 경치를 가까이 두고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오늘 위 부인의 명을 받고 여기에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계곡에서 목욕도 하면서 잠시 쉬다가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까.”⁹⁾

확실히, ①과 ②에 비해 가독성이 높아졌다. 한자어투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문장도 매우 간결하게 처리되어 있다. 읽기가 수월해졌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홍구지분’ 혹은 ‘경계’ 등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면서 가독성을 높인 것이 아니라 아예 삭제하고 있다. 삭제해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이것 때문에 내용 전달에 문제가 생긴다면 충분히 따져보아야 한다.

팔 선녀가 연화봉을 구경하지 못한 것은 육관대사가 연화봉에 절을 만들면서부터 엄격한 경계가 나뉘었기 때문이다. 이 경계를 원전에서는 ‘홍구지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팔 선녀와 성진이 사는 곳과의 소통이 금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후에 팔 선녀와 성진의 만남이 큰 죄가 되는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표현이다. 즉 가독성을 얻기 위해 이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내용상의 중요한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해가 저물기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는 표현, 폭포수의 좋은 경치를 풍류롭게 감상하겠다는 표현, 나아가 그러한 경험을 연화봉에

9) 이상일,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꿈이 아니더냐』, 나라말(국어시간에 고전읽기 구운몽), 2007, p. 22.

오지 못한 다른 자매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표현 등이 모두 생략된 채 한 문장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부분은 원전과 비교하여 의미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구운몽>의 풍부한 표현력이 사라져 버렸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전소설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짙고 넘어갈 사안이다. 고전소설은 세밀한 묘사가 없이 설명 위주로 전개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현대소설과 비교하여 풍부한 표현이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물론 그러한 고전소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운몽>은 그렇지 않다. 가독성을 방해하는 대목이 아니라면 원전에 기록된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는 충분히 살려 주어야 해당 장면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대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운몽>의 원래 모습을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팔선녀가 다리 위에 앉아 아래로 흘러가는 물을 굽어보고 있노라니, √ 그 맑음이 마치 방금 닦아 놓은 거울과 같고, 물속에 비친 푸른 눈썹과 붉은 단장은 실로 한 폭의 미인도였다. 팔선녀는 물속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에도 취되어 그곳을 쉽게 떠나지 못한 채 날이 저물어 가는 줄도 몰랐다.¹⁰⁾

이 부분은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을 잘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원전의 √ 부분에 있는 “여러 골짜기의 물이 다리 밑에 모여 넓은 못을 이루었는데 그 맑음이 마치 광릉(廣陵)의 보배인 거울을 새로 닦은 듯하였다.”라는 부분이 생략되었다. 물이 맑음을 거울에 비유한 표현은 살리고 있지만, 원전에서 사용된 ‘광릉의 보배’라는 전고를 생략했다. 의미상 차이는 없다고 할지라도 전고를 끌어와서 장면의 분위기를 풍부하게 살리는 <구운

10) 이상일, 위의 책, p.23.

몽> 나아가 고전소설 특유의 문체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푸른 눈썹과 붉은 단장이 물 속에 떨어져 마치 한 폭의 미인도 같았다.”라는 표현을 “물속에 비친 푸른 눈썹--”으로 바꾸었다. 물속에 모습이 비치는 것을 원전에서는 “비치는 대상이 떨어진다”고 표현했으니 품격 있는 수사를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사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감수해야 할 몫이다. 가독성과 문학적 표현력을 선택하라면 문학작품의 경우는 당연히 문학적 표현력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정도 수사 중, 고등학생 수준이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며, <구운몽>이 가진 고전으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이런 부분이 평이한 문체로 현대역되면서 사라졌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표현상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는 텍스트는 초등학생을 주요 독자층으로 삼은 텍스트이다. 원전의 분위기를 제대로 살린 <구운몽>을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나라말 출판사 텍스트도 초등학생이나 중등 저학년이 읽기에는 부담스럽다. 어린 연령대의 독자들에게까지 <구운몽>을 읽힐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왕 출판된 텍스트가 워낙 다양하니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 ③ 양소유는 어머니의 편지를 잘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 만에 낙양 땅에 도착하였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 한 주점에 급히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하는 동안 술을 몇 잔 마셨더니 금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비가 그치자 다시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 천진으로 향하였습니다. 도중에 낙양 시내의 화려한 물건과 변화한 거리가 양소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11)

11) 주재우, 『구운몽』, 계림, 2007, p.39.

- ④ 양소유는 동자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어느덧 양소유는 낙양을 지나게 되었다. 성안에 들어서자 화려한 누각과 정자가 서 있고, 그 앞에 푸른 강이 느릿느릿 흘렀다.¹²⁾

- ⑤ 소유는 나귀를 타고 떠난 지 며칠 만에 장안 근처에 있는 낙양에 도착했다. 낙양성 안에 들어가 보니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¹³⁾

양소유가 진채봉과 다시 만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과거를 보러 집을 나서는 대목이다. 내용상으로는 ③이 가장 자세하게 다루었고 ④, ⑤는 대동소이하다. ③은 비록 다른 텍스트에 비해 자세하기는 하지만 양소유와 술집 주인과의 대화 장면, 천진으로 가는 이유가 빠져 있다. 규장각본에 따르면 양소유는 비를 피하기 위해 주막을 찾아갔고, 주막의 주인이 “상공이 술을 자시려 합니까?”라고 묻는 바람에 좋은 술을 가져 오라고 했다. 따라서 시골에서만 자란 양소유가 난생 처음 변화한 도시에 와서 어떤 자존심을 지키려 노력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주막 주인이 가져온 술을 먹은 양소유가 그 술이 상품이 아니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분명하게 감지된다.¹⁴⁾ 그런데 ③에서는 비를 피하는 동안 술을 먹어 얼굴이 붉어졌다고만 되어 있어 양소유의 음주 동기를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어린 양소유의 음주 장면이 도리어 저학년 학생에게는 비교육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 차라리 ④, ⑤와 같이 이 장면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특히 ③은 특이하게도 문장의 종결을 ‘-습니다’와 같이 경어체로 처리

12) 정영애, 『구운몽』, 예림당, 2008, p.40.

13) 김대성, 『구운몽』, 아이세움, 2008, p. 45.

14)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자랐지만, 도시의 사람보다 뛰어난 풍모를 가지고 있는 양소유의 재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하고 있다. 유아나 초등 저학년용 동화책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문체이다. <구운몽>을 동화로 완전 탈바꿈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다른 텍스트에 비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읊기면서 이런 문체를 사용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전소설 현대역 텍스트 중에는 내용을 축약하고 동화에 가깝게 만든 것도 다수 있다. <박씨전>, <금방울전> 등은 그러한 작업이 충분히 가능한 소설이다. 그러나 <구운몽>은 그렇게 변용하기가 쉽지 않다.¹⁵⁾ 이러한 문체는 결국 고전소설은 모두 설화적 성격, 동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③과 ⑤는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④는 나귀 없이 동자만 대동한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사소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의미 전달에 미묘한 차이를 낳게 하는 부분이다. 양소유는 가난한 집안의 시골 서생이며 초라한 행색으로 변화한 도시에 들어왔지만, 명색이 사대부 집안의 자손이다. 나귀는 전자의 의미를 표현하는 소재이며 동자는 후자에 해당하는 소재이다. 이 장면에서 굳이 더 중요한 소재를 말하자면 나귀일 것이다. 나귀를 탄 양소유의 초라한 시절이 말을 탄 출세한 시절과 비교되는 대목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자’만 서술한 ④의 경우는 가난한 양소유가 아닌 사대부 집안의 양소유의 모습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우리 고전소설의 근간인 초라한 주인공이 자신의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한다는 ‘영웅의 일생’과도 배치(背馳)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양소유 집이 가난하다는 서술이 나오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가난한 집에서 왜 동자를 두는가라는 소모적인 의문을 생산할 수도 있다.

15) <구운몽>에서 사용되는 전고의 양이나 이야기의 분량, 품격 있는 문체 나아가 전 연령대가 읽기에는 부적절한 장면의 설정 등이 다른 소설보다 번역을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이 가독성을 고려하면서 원전의 분위기와 의미를 살리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위에서 보았듯이 고려할 요소가 하나 둘이 아니며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역 텍스트가 가독성에 치중한 나머지, 단어를 생략하거나 표현을 바꾸었을 때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사소한 부분은 놓칠 수도 있으며, 굳이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다. 특히 아동이라면 오히려 전달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법한 장면도 있다. 그런데 대개의 현대역 텍스트는 이러한 전략적 고려 없이 편의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편의에 따른 현대 텍스트로 인해 <구운몽>이 지닌 고전적 가치가 폄하되거나 우리 고전소설 전체의 가치마저 부정될 여지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 절에서는 이런 문제가 서사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청소년, 아동용 텍스트의 구조

<구운몽>을 읽는 재미나 이를 통해 얻는 의미의 측면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성진의 입몽과 각몽 대목, 환생 후 팔 선녀를 차례로 만나는 과정에 초점이 모아진다. 팔 선녀를 만나는 대목에서는 진채봉, 계섬월과의 만남 그리고 정경패와 난양공주와의 만남을 특히 주목할 수 있다. 진채봉은 양소유가 처음으로 만나는 인연임과 동시에 진채봉이 비련의 삶을 사는 여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간다. 계섬월의 경우는 신분이 기생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이하의 독자층 텍스트에서는 더욱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정경패와의 만남은 <구운몽> 전체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이면서도 여장한 양소유와 음악을 통해 교류하는 모습, 속고 속이는 사건 등 다양한 재미를 창출하는 부분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텍스트의 경우는 앞 절에서 본 것과 같은 문체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장면들은 대개 살려서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서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동 혹은 중학교 저학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에서는 축약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서사 구조의 측면에서 상당한 변형이 초래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구운몽>은 양소유의 삶을 통해서 사대부 남성의 욕망을 한껏 드러낸 작품이다. 그런만큼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부장적 질서가 내재화 되어 있다. 물론 조선시대 소설치고 그렇지 않은 소설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러나 <구운몽>은 양소유와 팔 선녀의 만남을 통해 참으로 발랄하고 때로는 발칙하기도 한 남성 중심의 애정 욕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게 있어서는 교육상 문제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용 텍스트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입몽과 각몽 장면, 팔 선녀와의 만남 장면은 빠짐 없이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반영의 정도에서 계섬월과 만나는 부분, 정경패를 유혹하는 부분은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난다. 계섬월 장면은 기생에 대한 처리 문제, 적경홍을 첩으로 천거하는 문제 등에서 구성상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며, 정경패 장면에서는 음악 장면에 대한 까다로운 번역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텍스트의 변형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만남의 대상 | 세부 장면 | 예림당 | 아이세움 | 계림 | 생각의 나무 |
|--------|----------|-------|-------|-------|--------|
| 계섬월 | 만남의 계기 | 잘 반영됨 | 잘 반영됨 | 잘 반영됨 | 잘 반영됨 |
| | 계섬월의 과거사 | 있음 | 없음 | 없음 | 있음 |

| 계섭월 | 혼인 언약 | 정식 부인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언약 | 혼인 언약만 함 | 정식 부인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언약 | 정식 부인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언약 |
|-----|----------|----------------------|--------------------|-----------------------------|----------------------|
| | | 적경홍 천거 | 있음 | 없음 | 없음 |
| 정경매 | 만남의 계기 | 있음 | 있음 | 있음 | 있음 |
| | 여장의 이유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 | 음악 연주 장면 | 봉구황 대목만 있음 | “곡을 차례로 연주했다”로만 처리 | 상세하지는 않지만 봉구황 대목까지의 과정이 제시됨 | 연주했다는 서술만 있음 |
| | 정체 탄로 장면 | 봉구황 연주 후 고개를 들어 살핌 | 이유 없이 눈을 들어 유심히 살핌 | 봉구황을 듣고 방으로 들어감 | 음악을 듣고 방으로 들어감 |

논의의 편의상 위와 같이 정리를 하고 보면 우선 계섭월의 과거사 처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전에서는 계섭월이 기생이 된 이유와 현재 선비들의 시를 폄평하게 된 목적을 이 부분에서 밝히고 있다. 계섭월은 계모에 의해 강제적으로 기생이 되었고, 자신의 마음에 차는 영웅을 만나기 위해 천하 선비들의 시를 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술자리의 명랑하고 들뜬 분위기가 계섭월의 기구한 인생과 역설적인 조화를 이루게 된다. 만약 이 부분이 없다면 계섭월은 얼굴이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평범한 기생으로만 읽히게 된다. 또한 양소유가 계섭월과 혼인을 언약하는 동기 역시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계섭월의 과거사 부분은 교육상의 이유로도 보다 구체적으로 삽입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혼인 언약이 첩으로 맞이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와 동시에 계섭월이 절친한 친구인 적경홍을 양소유의 첩으로 천거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 부분은 조선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가부장제에 대한 이해, 이에 기반하여 창작된 당시 소설의 관습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읽혀야 하기 때문에 아동의 문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원전 <구운몽>은 풍부한 묘사와 품격 있는 문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의 선정성이 충분히 가려지지만 축약된 상태에서는 양소유의 바람둥이 기질과 그에 매달리는 여성의 모습만 부각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왕 <구운몽>을 현대역의 대상으로 한 이상은 이 부분을 완전히 삭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생각의 나무’ 텍스트는 이 장면이 나오는 페이지 하단에 ‘생각거리’라는 부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양소유는 계섬랑과 만나자 진채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은 채 사랑에 빠 집니다. 게다가 계섬랑에게 사대부 집안의 규수 중에 괜찮은 사람이 없냐고 묻습니다. 양소유의 이런 태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¹⁶⁾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의도이다. 축약해서 오히려 문제만 더 부각시킨다면 차라리 원래 장면을 살리면서 이와 같이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정경패가 등장하는 장면은 <구운몽>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양소유의 제 1처가 되는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채봉이나 계섬월과는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정경패를 통해 당대의 바람직한 여성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양소유의 첩이 되는 6명의 여성은 모두 여성이 먼저 양소유에게 접근했지만 정경패의 경우는 양소유가 먼저 접근하며, 그 접근 또한 상당히 어렵게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모두 정경패가 전형적인 사대부 규수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경패는 시를 외우고 예를 익혀 숙녀로서의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까닭에 외간 남자가 만날 방도가 없는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16) 박지용, 『모두가 꿈이로다』, 생각의 나무, 2009, p.39.

소유가 굳이 정경패를 만나기를 원하니, 두련사가 여장(女裝)과 음악연주라는 계교를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위의 텍스트들은 이런 정경패의 성격 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소유는 숙모를 찾아가 정 낭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숙모가 곰곰이 생각하다 “혹시 자네 음률을 익힌 적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¹⁷⁾

양소유가 여장을 한 계기를 이 정도로만 밝히고 있거나 아예 이러한 서술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양소유가 여장을 하고 음악 연주를 한 것이 단순히 정경패와의 만남을 위한 장치로만 읽히게 된다. 사대부 규수로서 자신의 몸가짐을 지키는데 엄격한 정경패의 성격은 전혀 읽을 길이 없게 되었다.

고전소설의 관습으로 보자면 제일 처음에 만난 여성과의 인연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마련이다. 아마 <구운몽>을 처음 읽은 독자라면 진채봉과 양소유의 혼인 여부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할 것이고, 훗날 진채봉이 양소유의 처가 되지 못하고 첩이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할 수도 있다. <구운몽>에서 진채봉이 양소유의 처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진채봉이 윤리적 완결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채봉은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여성 스스로가 남성에게 먼저 청혼하는 대담성을 발휘했다. 진취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당대가 인정하는 바람직한 여성의 모습은 아니다. 원전에서는 이러한 진채봉의 행위를 탁문군의 고사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남자 친척에게도 얼굴을 좀처럼 보이지 않는 정경패의 행동과 대비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진채봉은 양소유의 처음 인연임에도

17) 박지용, 위의 책, 같은 곳.

불구하고 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정경패의 성격만큼은 최대한 원전에 가깝게 부각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관에 대해 독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생략되면서 정경패가 제 1차가 되고, 진채봉이 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원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앞뒤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가독성만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정경패와 양소유의 만남은 음악을 통한 교류라는 점에서 묘한 매력을 지니게 된다. 양소유의 또 다른 처가 되는 난양공주와 만남 역시 통소 소리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만큼 음악적 교류는 <구운몽>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정경패와의 음악적 교류에서는 두 사람의 음악에 대한 높은 식견이 부각되기 때문에 엄숙하고도 지적인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¹⁸⁾ 그런 만큼 이 장면을 원전에 가깝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각주가 필요할 정도이다. ‘곡명’과 그 유래, 곡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술되는 수많은 인물과 전고들이 모두 각주에서 해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용 텍스트에서 이 장면을 제대로 살린 경우는 발견할 수가 없다.

⑥ 그는 자신 있게 한 곡을 연주하였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정경패가 입을 열었습니다. “곡조가 참 아름답군요. 태평한 시절의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세상의 잡스러운 소리입니다. 다른 곡을 듣기 원합니다.” ㉠양소유는 연달아 여덟 곡을 연주하였습니다. ㉡정경패가 그만 들고자 하여 연주를 그치도록 하자 양소유가 말하였습니다. “제가 들으니 음악소리

18) 난양공주와의 교류 장면은 통소 소리에 반응하는 학의 움직임으로 인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가 아홉 번 변하면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직 연주하지 않은 한 곳이 남아 있으니 마저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다시 줄을 끌라 한 곡을 연주하니 ㉠음악 소리가 전보다 더욱 유려하고 호탕하였습니다. 그때 문득 ㉡정경패의 뺨이 붉어지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더니, 몸을 일으켜 자리를 떠났습니다.¹⁹⁾

- ⑦ 소유는 산에서 만나 백발도사가 들려줬던 곡을 차례로 연주했다. 최씨 부인과 경패는 소유의 거문고 소리에 취하여 한나절을 꼬박 보냈다. 그런데 경패가 눈을 들어 소유를 유심히 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²⁰⁾

원전에서 이 장면은 양소유가 한 곡조를 연주하면 정경패가 품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덟 곡이 차례로 등장한다. 곡이 거듭될수록 더욱더 품격이 높은 곡조가 등장하는데, 여덟 번째 곡조가 순임금의 ‘남훈’이다. 정경패는 이 곡조가 그 뜻이 지극히 높고 아름답다고 평하고는 이보다 더 나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에서 처럼 그만 듣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에서는 이런 맥락이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의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의 문맥을 따른다면 정경패가 양소유의 연주에 싫증이 났을 수도 있고, 이미 양소유 정체를 파악했을 수도 있다는 엉뚱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의 표현만으로 보면 양소유가 계속 정경패를 유혹하는 연주를 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전을 보면 이전의 여덟 곡은 아홉 번째에 연주한 곡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정중한 음악이었다. 아홉 번째 곡에서 곡의 성격이 달라지니 정경패가 그 뜻을 알고 뺨이 붉어지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며 자리를 떠난 것이다. 따라서 ㉡은 다른

19) 주재우, 위의 책, p.52.

20) 김대성, 위의 책, p.50.

텍스트에 비해 이 장면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기계적인 축약으로 인해 <구운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장면을 훼손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차라리 ⑦과 같이 완전히 압축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⑦ 역시 정경패의 성격을 곡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당시의 예의에 충실한 정경패가 아무 맥락 없이 양소유를 쳐다 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경패는 양소유가 마지막에 탄 곡조에 심기가 불편하고 의심이 들어 두어번 거들떠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⑦의 번역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정경패가 눈을 들어 유심히 본다고 하여 숙녀로서의 정경패의 성격과 맞지 않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원전에 가깝게 현대역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독서 대상의 눈높이와 교육적 목표에 맞추어 원전을 적절하게 변형 작업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후자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변형을 할 때는 원전의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텍스트 자체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비교적 잘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 텍스트에서도 이러한 중대한 결함들이 도처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의 고전에 대한 인식 결여에서 나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줄거리만 대충 전달하고 매끄럽게 연결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교한 검토 없이 모양새만 갖추어 출판하는 태도 등에 대한 반성과 교정이 필요하다.

4. 현대역 텍스트의 삽화와 부가 정보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나온 현대역 텍스트는 작품 내용 외에도 다양한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하고 있다. 삽화는 물론이고 작품 해설, 시대적 상황, 생각할 문제 등 상당히 입체적인 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구성

을 분석하면, <구운몽> 독서에 대한 현주소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삽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 명, 청대의 소설과는 달리 조선시대 소설에는 삽화가 거의 없다. 소설에서 삽화는 소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된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는 소설은 물론이고 다른 책에서도 삽화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대에 출판되는 책들은 삽화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삽화를 삽입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용 도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삽화는 책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구운몽>의 경우 중, 고등학생이 많이 읽는 <나라말>은 전면 삽화와 부분 삽화를 합해서 삽화의 분량이 80쪽 이상을 차지한다. 작품 본문이 311쪽 내외로 구성된 것을 감안하면 30%의 쪽수에 삽화가 들어가 있는 셈이다. <아이세움>과 같은 초등학생용 텍스트는 거의 매 쪽에 삽화가 들어가 있어 텍스트와 삽화의 비중이 거의 같을 정도이다. 그렇다보니 책이 상당히 화려해졌고 읽는 재미에 보는 재미가 더해졌다. 조선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구운몽> 삽도본이 현대에 와서 새롭게 탄생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런데 삽화는 문학이나 독서 교육에서 텍스트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삽화의 내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단지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삽화는 좋은 삽화라고 할 수 없다. 복잡한 텍스트의 의미나 인물의 성격, 상황에 대한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삽화여야 진정한 의미의 삽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삽화만으로도 해당 장면의 분위기나 인물의 심리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삼화(나리말, 84쪽)



삼화2(예림당, 131쪽)

<구운몽>이 조선시대 소설이고 작품의 배경이 중국의 당나라 시절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대개의 삼화 역시 동양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림 형태도 전형적인 동양화 풍은 아니더라도 동양화에 가까운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인물은 세밀한 묘사를 지양하고 약간 왜곡된 형태의 얼굴 윤곽을 잡아 만화적 캐릭터의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아마 독자층의 연령대를 감안하여 보다 친근감이 들도록 그린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삼화가 책 자체에 대한 재미나 친근감을 높이는 데에는 충분히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자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텍스트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삼화가의 개성이 너무 지나치게 반영되었거나 <구운몽>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못 파악하여 삼화가 텍스트 이해에 방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삼화3>은 어두운 색감과 무거운 캐릭터로 인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암울한 빛이 돌도록 하였다. 부분적으로 애상적 분위기가 설정되



삼화3(계림, 59쪽)

는 곳도 있지만 <구운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고 명랑하다. 특히 양소유의 삶에서 인생의 즐거움이 강조되어야 성진의 각몽 부분에 대한 의미가 더욱 살아난다. 물론 삼화가 그림이라는 독립적인 예술성을 견지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삼화가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텍스트를 더 잘 이해시킬 목적으로 그려지는 삼화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구운몽>의 삼화 구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등장인물에 대한 캐릭터이다. <구운몽>에는 육관대사와 양소유를 비롯하여 8명이 여인이 등장하며, 이중 8명의 여인들은 제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인물들의 성격이 다채롭기 때문에 <구운몽>은 더욱 재미있게 읽힌다. 그렇다면 이 인물들의 캐릭터가 제대로 구현된 삼화가 있다면 그 삼화만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책이 될 수 있다.

<삼화 4>, <삼화 5>가 이러한 시도를 한 경우로 보인다. 다른 텍스트에서는 개별 인물에 대한 독립적인 캐릭터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변별점이 없다. <삼화 4>는 진채봉, <삼화5>는 계섬월을 단독 인물화하여 그리고 있다. 캐릭터 자체가 이 인물의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삽화4(나라말, 27쪽)



삽화5(나라말, 34쪽)

한편, <삽화 6>와 같이 만화의 형식을 본격적으로 이용한 삽화도 있다. 만화의 성격답게 인물의 행동과 표정에서 다소 과장된 측면이 드러난다. 고전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독자층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절한 장면을 구상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말풍선을 이용해서 실제 텍스트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용된 삽화는 여장한 양소유가 정경패에게 그 정체가 탄로나는 장면인데, “히히, 내 여장에 감쪽같이 속았겠지?”라는 말풍선을 통해 양소유의 행위에 다분히 장난기가 묻어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실제 작품의 분위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원전의 분위기를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 볼 부분은 작품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부분이다. 문학 텍스트를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 출간된 대개의 텍스트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아예 책의 표지에 ‘논술대비’, ‘국어수업대비’, ‘독후감 대비’ 등의 목적성 문구가 들어가



삼화6(아이세움, 51쪽)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용 책들이 어떠한 부분을 학습 요소로 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다양한 학습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책은 <나라말> 텍스트이다. 이 책에는 중간 중간에 작품 해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실을 삽화와 사진을 곁들여 제공하고 있다. 환생에 대한 것, 작가와 양소유의 비교, 악기, 신선 세계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꿈 속의 일을 대상으로 전

개되는 영화에 대한 해설도 말미에 붙어 있다. 이런 정보들로 인해 <구운몽>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질 수 있고, 작품을 떠나서도 과거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서 얻는 큰 수확 중의 하나이다. 이런 학습을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물론 이 책을 포함해서 대개의 텍스트들이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작품 내용에 대한 사실적 이해와 비판적 이해이다. <예림당> 텍스트는 아예 개관식 문항을 구성해서 책의 말미에 붙여 놓았다. 그런가하면 <생각의 나무>는 중요 장면에 대한 ‘생각거리’를 제공해서 비판적 독서를 하게 했고, <아이세움> 텍스트에서는 논술 문항을 제시하고, 답안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독서 교육적 차원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구운몽>을 통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

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책의 구성에 대한 발상은 좋은데, 이 발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원전 자체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대역 텍스트에서 이 과정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5. 맺음말

<구운몽>은 <홍길동전>, <박씨전>, <심청전> 등의 고전소설에 비해서는 현대역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된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다른 소설에 대해 분량이 많다는 점, 번역이 까다롭다는 점, 동일한 내용으로는 전 연령대가 읽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된 작품으로 국정 7차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고, 국정 교과서가 없어지는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도 <구운몽>은 중요한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학사에서 <구운몽>이 중요한 작품인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구운몽>을 우리의 고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일이다. 다른 소설을 압도할 정도로 수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운몽>에 대한 대중적 인식도는 고전이라고 불릴 수 없도록 정도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구운몽>을 학교 현장의 문학수업과 연관된 작품, 논술과 연관된 작품이 아니라 어디에 내놓아도 품격이 있는 우리 고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시대 소설은 심오한 사상적 깊이와 독창적 문학성을 지닌 고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래된 소설이라는 관점에서 고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전공자에게 적합한 현상이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우리 소설의 면

모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구운몽>은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에 좋은 작품이다.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서도 당시의 고전소설을 한꺼번에 끌어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문장의 수준과 주제적 깊이는 말할 나위도 없다.

<구운몽>은 <만복사저포기> 등의 귀신 모티프, <주생전> 등의 기생 모티프를 다양하게 수용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한 작품이다.²¹⁾ <만복사저포기>에 설정된 귀신과의 사랑 장면이 대단히 심각하고 진지했다면, <구운몽>은 양소유를 속이기 위한 해프닝으로 귀신을 이용한다. 또 <주생전>의 배도는 선화와의 애정 갈등 속에서 죽어가지만 <구운몽>의 계섬월은 애초에 첩이 되겠다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구운몽>은 확실히 낭만적인 소설이다.²²⁾ 그러면서도 김만중은 <구운몽>을 통해 전에 볼 수 없었던 성진과 양소유, 정경패 등의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하였다. 게다가 <구운몽>은 정경패와 난양공주와의 혼인 과정에서 보여주듯, 황실의 늑혼과 자매의 혼인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유씨삼대록>, <명주기봉> 등의 장편소설과도 연결이 되는 작품이다. 이런 맥락에서 <구운몽>은 우리 소설사의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는 작품이다. 한문소설과 국문소설, 단편소설과 장편 대하소설, 나아가 중국소설과 한국소설의 사이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소설의 시대를 개척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²³⁾

21) 뿐만 아니라 진채봉을 통해서도 <운영전>의 궁녀 모티프를 만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22) 박일용, 『조선시대 애정소설』, 집문당, 1993, pp.188~218 참조.

23) 이에 대해서는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 8집, 2002, p.241~270 및 송성욱, 『17세기 중국소설의 번역과 우리소설과의 관계』, 『한국고전연구』 7집, 2001, pp.71~94 참조.

<구운몽>과 현대적 소통을 시작하면서 복잡한 연구사적 맥락이 깔려 있는 주제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적인 사안은 아니다. 이 문제는 뒤로 미루어도 될 듯싶다.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구운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고전소설의 미학이며, 고전소설 전체에 걸쳐 있는 지형도이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구운몽>을 자발적으로 읽으려는 독자층을 확보하기 힘들다. <구운몽>과 현대적 소통을 시작하려는 현대역 텍스트들도 이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²⁴⁾

24) 물론 원전에 기반한 현대역 위주의 텍스트만이 현대적 소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춘향전>이나 <심청전>이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등을 통해서 현대적 소통을 하고 있듯이 <구운몽> 역시 이러한 장르로의 확산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출간된 정병설, 『구운몽도』, 문학동네, 2010.가 이런 시도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 작업을 통해 <구운몽>을 한국의 회화사, 풍속사 속에서 폭넓게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미 중국에서는 <서상기>나 <홍루몽>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캐릭터가 만들어졌다. <구운몽>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우리 고전을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성, 『구운몽』, 아이세움, 2008.
- 박지웅, 『모두가 꿈이로다』, 생각의 나무, 2009.
- 설성경, 『구운몽』, 책세상, 2003.
- 성낙수, 유의중, 조현숙, 『중학생이 보는 구운몽』, 신원문화사, 2009.
- 송성욱, 『구운몽』, 민음사(세계의문학전집 72), 2003.
- 이상일,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꿈이 아니더냐』, 나라말(국어시간에 고전읽기 구운몽), 2007.
- 정병설, 『구운몽도』, 문학동네, 2010.
- 정영애, 『구운몽』, 예림당, 2008.
- 주재우, 『구운몽』, 계림, 2007.
- 권순근,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시행과 방법』, 『한국고전연구』 1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pp.27~56.
- 권혁래, 『<구운몽>의 현재적 소통과 다시쓰기 출판물』, 『온지논총』 27집, 온지학회, 2011, pp.9~37.
- 권혁래, 『대학 교양수업에서의 <구운몽> 읽기와 소설교육』, 『새국어교육』 83집, 새국어교육학회, 2009, pp.5~25.
- 박일용, 『조선시대 애정소설』, 집문당, 1993, pp.188~218.
-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 8집, 2002, pp.241~270.
- 송성욱, 『17세기 중국소설의 번역과 우리소설과의 관계』, 『한국고전연구』 7집, 2001, pp.71~94.
- 이강욱, 『<구운몽>의 재해석과 희망의 서사교육』, 『국어교육연구』 46집, 국어교육학회, 2010, pp.121~158.
- 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ABSTRACT

How to communicate with <Gyunmong>

Song, Sung-Uk

This paper have an intention of inspecting on the trends of the text-studies and indicating the vision of future, focus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Gyunmong>. It is a matter of common knowledge that the interpretation or re-writing of classical novel is very important to the read the korean novel. In matter of fact so many re-writing texts have been printed, but there are a few survey carried out. Text-studies is recognized as not the area of an essential study but an marginal study as well. Without re-writing text, contemporary communication to classical novel such as <Gyunmong> is not possible. The study of text have an intention of the position of bibliographical study simultaneously whit the position of analytics. As a part of this studies, I suggest that the scholar who investigate text itself have to make the text as the model of example. The study of re-writing text and survey of interpretation to classical novel aims to make good text. I suggest here what the good text is, what the condition make good text. <Gyunmong> is the most important novel in the side of history of novel and education of literature, so this study focuss on the <Gyunmong>.

Key Words <Gyunmong>, text, re-writing, interpretation, education of literature

논문투고일 : 2011. 3. 31
심사완료일 : 2011. 5. 20
게재확정일 : 2011. 5. 31